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
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.

2021. 6.
Vol.55

NYPi Bluenote
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

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[1)]

오해섭 선임연구위원
문호영 연구위원

개요

조사목적
- ▶ 10대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인생관, 가족 및 결혼관, 진로 및 직업관, 학교 및 친구관, 사회 및 국가관, 다문화 의식의 총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「청소년 가치관 조사」를 실시함.
- ▶ 본 조사와 기존 가치관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,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
조사대상 ▶ 전국 중학교 1~3학년, 고등학교 1~3학년에 재학 중인 5,740명의 청소년

조사방법 ▶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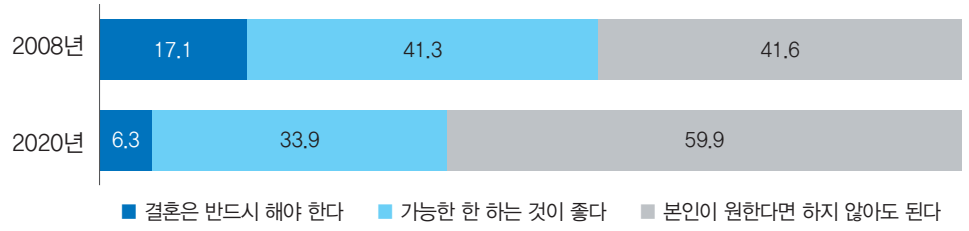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 ▶ 2020년 7월 ~ 9월

1) 본 청소년 통계 브리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과제인 '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'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.

1 결혼에 대한 인식

-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, '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'는 응답이 59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'는 응답은 33.9%, '반드시 해야 한다'는 응답은 6.3%로 나타남.
  - **[관련 통계]**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2008년도에 비해 결혼은 '반드시 해야 한다'와 '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'에 응답한 비율은 감소한 반면, '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'에 응답한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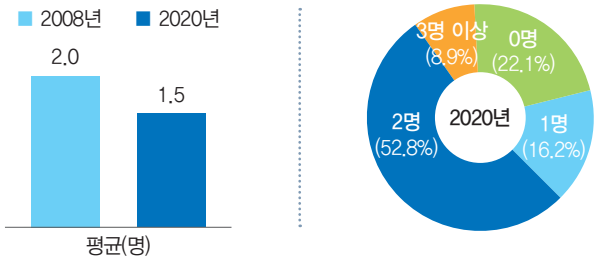
* 출처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 자료임.

그림 1 결혼에 대한 인식(2008년, 2020년)

2 희망 자녀 수

- 청소년들이 장래에 희망하는 자녀 수는 평균 1.5명이었으며, 구체적으로 두 자녀(52.8%)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, 이어서 0명(22.1%), 1명(16.2%), 3명 이상(8.9%) 순으로 나타남.
  - **[관련 통계]**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청소년들의 희망 자녀 수는 2008년(평균 2.0명)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: 명, %)



* 출처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 자료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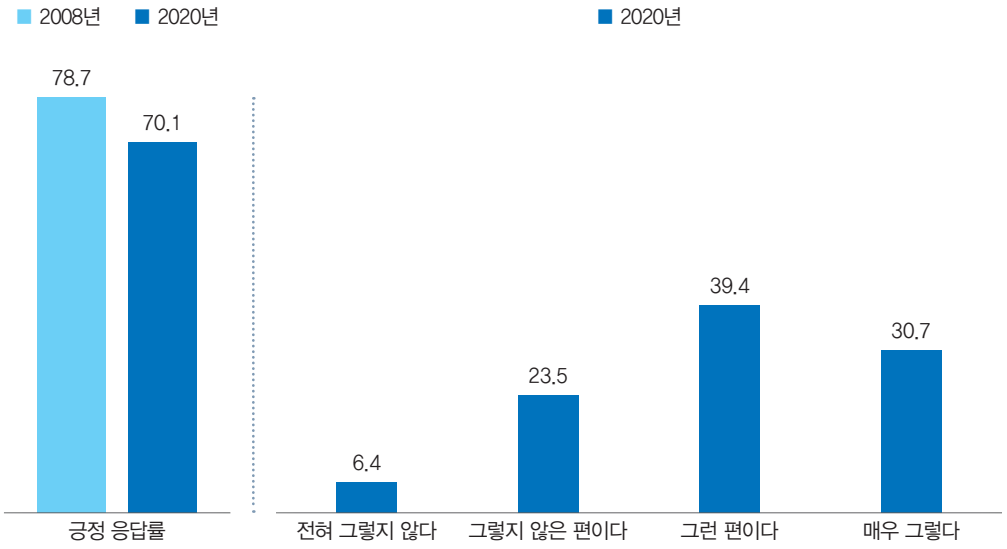
그림 2 희망 자녀 수(2008년, 2020년)

3 대학 진학의 필요성

■ 청소년 10명 중 7명(70.1%)은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고 생각함.

– **[관련 통계]**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2008년(78.7%)에 비해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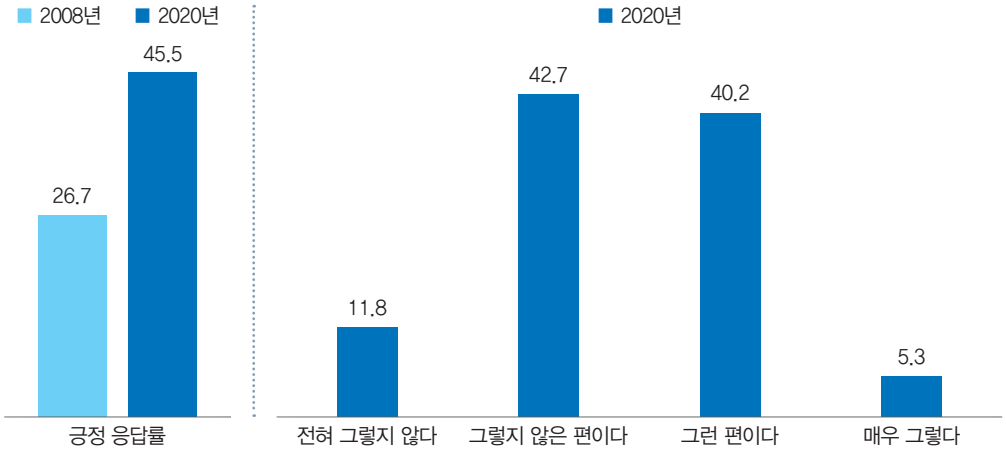
* 출처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 자료임.
* 주: 1) 2008년 결과는 '전혀 그렇지 않다' 3.8%, '별로 그렇지 않다' 17.5%, '다소 그렇다' 33.6%, '매우 그렇다' 45.1%임.
2) 2008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다소 그렇다', 2020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'임.

그림 3 미래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(2008년, 2020년)

4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: 공정

- 우리 사회가 대체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45.5%로 나타남.
  - **[관련 통계]**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,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2008년도(26.7%)보다 우리 사회를 대체로 공정한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함.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과반수(54.5%)가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평가함.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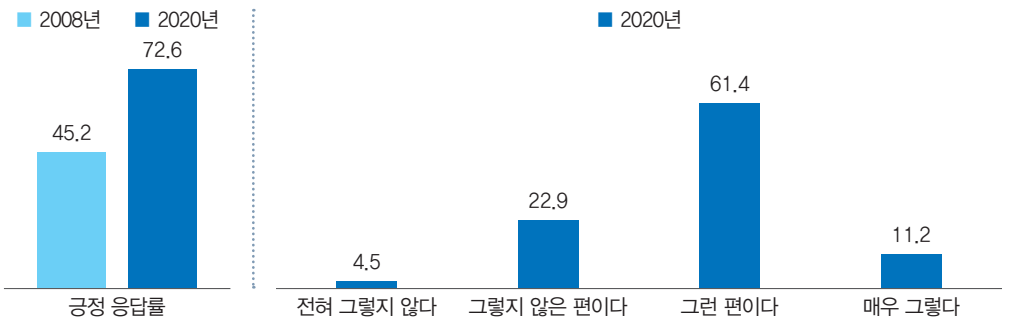
* 출처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 자료임.
* 주: 1) 2008년 문항은 '우리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', 2020년 문항은 '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'임.
2) 2008년 결과는 '전혀 그렇지 않다' 24.0%, '별로 그렇지 않다' 49.3%, '다소 그렇다' 23.1%, '매우 그렇다' 3.6%임.
3) 2008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다소 그렇다', 2020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'임.

그림 4 우리 사회에 관한 인식: 공정(2008년, 2020년)

5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: 인권 존중

-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72.6%로 나타남.
  - **[관련 통계]**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,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2008년도 (45.2%)보다 우리 사회를 인권 존중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: %)



* 출처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 자료임.

* 주: 1) 2008년, 2020년 문항은 '우리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'임.
2) 2008년 결과는 '전혀 그렇지 않다' 12.9%, '별로 그렇지 않다' 41.8%, '다소 그렇다' 38.9%, '매우 그렇다' 6.3%임.
3) 2008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다소 그렇다', 2020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'임

그림 5 우리 사회에 관한 인식: 인권 존중(2008년, 2020년)

6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: 다양성 인정

-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65.8%로 나타남.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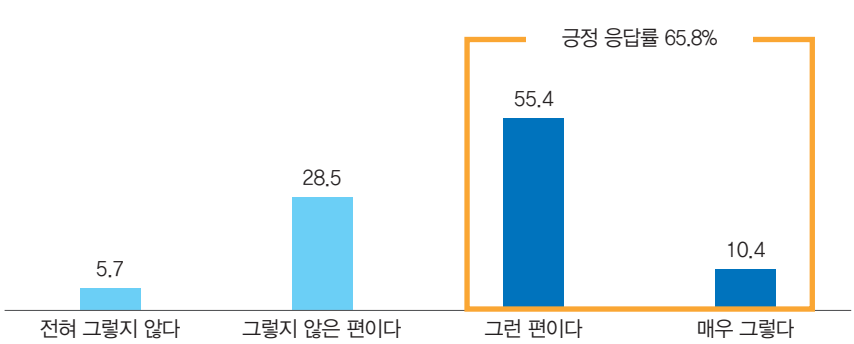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(2020년)

7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: 남녀평등

-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4.7%로 나타남.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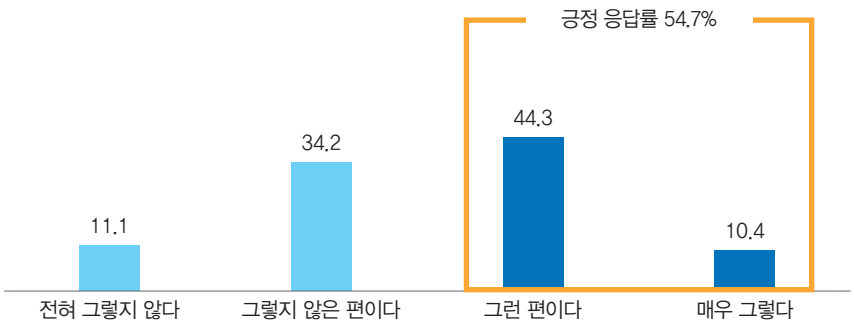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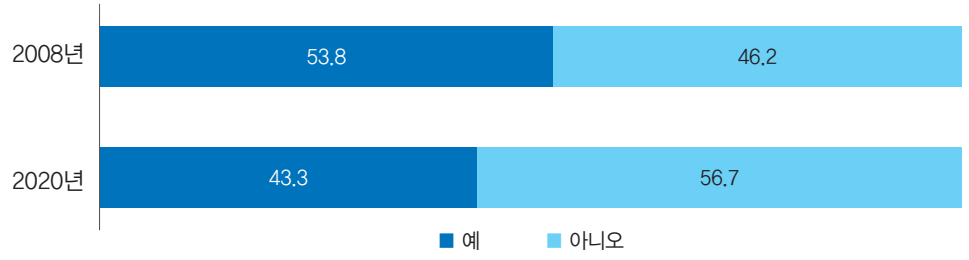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이다(2020년)

8 사회적 이슈나 쟁점,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

- 사회적 이슈나 쟁점, 정치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,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43.3%, 표현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6.7%로 나타남
  - [관련 통계]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2008년도(53.8%)에 비해 사회적 이슈나 쟁점, 정치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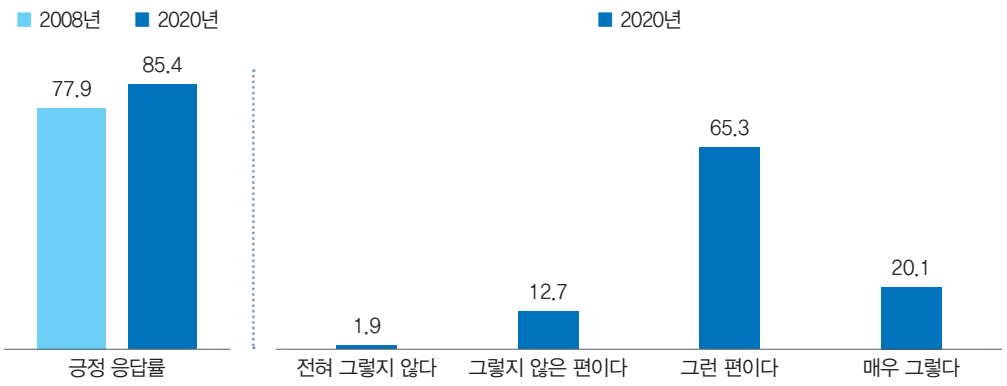
* 출처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 자료임.

그림 8 결혼에 대한 인식(2008년, 2020년)

9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친구에 대한 인식

- 다문화 사회의 진전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의 85.4%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.
  - [관련 통계]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2008년도(77.9%)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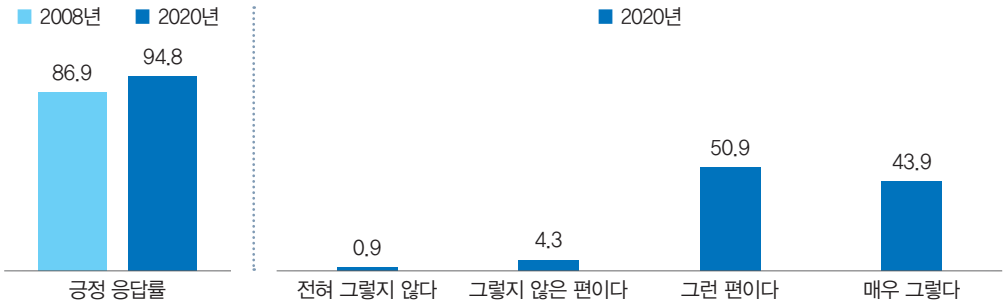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 자료임.
* 주: 1) 2008년 문항은 '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까', 2020년 문항은 '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'임.
  2) 2008년 결과는 '전혀 도움이 안 된다' 3.7%, '별로 도움이 안 된다' 18.3%, '다소 도움이 된다' 65.0%, '매우 도움이 된다' 12.9%임.
  3) 2008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도움이 된다+다소 도움이 된다', 2020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'임.

그림 9 다문화 사회의 국가 발전에 대한 인식(2008년, 2020년)

- 나와 다른 인종 혹은 민족의 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의 94.8%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.
  - [관련 통계]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2008년도(86.9%)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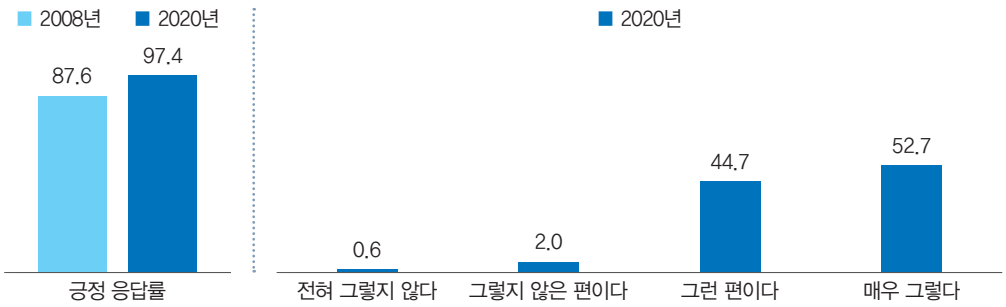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자료임.
* 주: 1) 2008년 문항은 '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다', 2020년 문항은 '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귈 수 있다'임.
2) 2008년 결과는 '전혀 그렇지 않다' 1.7%, '별로 그렇지 않다' 11.4%, '다소 그렇다' 52.9%, '매우 그렇다' 34.0%임.
3) 2008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다소 그렇다', 2020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'임.

그림 10 다문화 청소년 친구에 관한 인식(2008년, 2020년)

■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97.4%가 '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'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.

– [관련 통계] 「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」(임희진 외 2009)의 한국 자료와 비교해보면, 2008년도(87.6%)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: %)



* 출처 : 2008년 결과는 「임희진, 김지연, 이경상 (2009).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. 서울: 보건복지가족부」의 한국자료임.
* 주: 1) 2008년 문항은 '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', 2020년 문항은 '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'임.
2) 2008년 결과는 '전혀 그렇지 않다' 2.1%, '별로 그렇지 않다' 10.3%, '다소 그렇다' 49.5%, '매우 그렇다' 38.1%임.
3) 2008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다소 그렇다', 2020년 긍정 응답률은 '매우 그렇다+그런 편이다'임.

그림 11 다문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인식(2008년, 2020년)